http://dx.doi.org/10.5392/JKCA.2015.15.06.227

초등학교 학생의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Delinquency

신재헌*, 김상운**
동국대학교 범죄학*,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Jae-Hun Shin(enfant21@naver.com)*, Sang-Woon Kim(ksw48@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초등학생 고학년인 5·6학년이 가지는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사회유대를 구성하는 요소인 애착관계에 따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애착관계를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었고, 비행을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으로 분류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위비행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과 교사에 대한 애착이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피비행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도피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이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비행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의 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착대상은 부모로서 부모와의 관계가 결국 10대 초반의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초등학생 | 사회유대이론 | 애착 | 관계 | 비행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 the impact of attachment relationships on the Juvenile delinquency. Attachment relationships divides attachment to parents, attachment to teacher, attachment to friends. Delinquency divides status delinquency, escape delinquency, violence delinquency, possessive delinquency. This study was used raw data of the "Survey of the victim in the elementary school."

Result of analysis was the case of post delinquency showed a passion for attachment to parents and teachers on a significant impact on status delinquency. Escape delinquency the love of paren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scape delinquency. Violence delinquen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linquency attachm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Attachment of possessive delinquency parent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sessive delinquency.

■ keyword : | Elementary School Student | Social Bond Theory | Attachment | Relationships | Delinquency |

접수일자 : 2015년 02월 05일
수정일자 : 2015년 03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3월 26일
교신저자 : 김상운, e-mail : ksw48@naver.com

1. 서 론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일반인과 같지 않은 전문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항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 비행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특성은 지능화・잔인화・과격화 되어 과거에 비해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아직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청소년비행 관련 연구들은 가정・학교・친구관계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이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주로 사회유대, 사회학습, 일반긴장, 자기통제, 낙인이론을 바탕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 중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다른 이론과 달리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허쉬에 따르면 ‘비행은 개인의 사회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발생한다’는 일반 명제로부터 시작한다. 사회유대이론에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를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라고 정하고 이들에 의하여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이러한 요소 중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애착”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다. “애착”이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인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애착관계가 강할수록 청소년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애착이 약할수록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2].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에서 애착관계가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을 하였으나, 공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 유대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된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적절한 대상을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Moffitt의 연구(1993)에서는 10대 초반 어린 시절에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10대 중・후반에 잠시 동안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에 비해 성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3],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10대 중・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에 의존하여 제시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들은 10대 중・후반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10대 초반 초등학생들의 비행행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4].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애착관계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와의 유대, 교사와의 유대, 친구와의 유대로 설정하고, 비행은 김준호와 이동원의 연구(1995)에서 제안하였던 비행분류를 바탕으로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으로 나누어 2011년 실행되었던 ‘초등학생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로우데이터를 PASW Statistic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비행의 의의

청소년의 일탈행동인 청소년비행은 청소년이 가지는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범죄와 일탈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모호성 등의 이유로 학자별로 통일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이란 법률이나 학교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비행은 한 가지의 일탈행동이나 범죄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범칙행위나 탈선행동이 하나의 사건

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 일어나는 생활의 양식을 가리킬 수도 있다[4].

이러한 비행에 대하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준호와 동료들의 연구(2009)에서는 “청소년 비행은 소년범죄 뿐 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경한비행과 지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처벌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 비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비행을 정의하였다[5].

김미희(2009)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비롯하여 현행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적・도덕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과거나 현재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잠재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정의하여 행위에 기준을 두고 정의하였다[6].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서 정의한 범죄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규정되는 지위비행 등을 청소년 비행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기준이 범죄의 위반까지 비행으로 규정 할 것인지, 청소년의 일탈행위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학자별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들을 종합하여 청소년비행을 정의하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포함하여, 흡연・음주・폭행과 같이 청소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비행의 유형

비행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 청소년 비행의 유형 역시 아직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시행된 비행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김준호와 이동원의 연구(1995)에서 정의된 비행의 유형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7]. 이 연구에서는 비행을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性)비행, 음란물비행, 약물비행으로 비행의 유형을 나누었으나, 이 연구의 특성 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성(性)비행, 음란물비행, 약물비행을 제외한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소년 비행 유형 중 첫 번째, 지위비행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탈행위 혹은 비행행위로 간주되는 유형의 비행이다.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행위로 인정되는 일탈행동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행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행위로 인정이 되어 비난을 받는 행위이다[8].

두 번째, 도피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등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위법한 행위일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처해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탈행위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형의 비행이다[8].

세 번째, 폭력비행은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비행행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싸움, 욕설, 집단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선 비행행위들과 달리 타인에게 영향을 주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는 형태의 비행으로써 행위정도에 따라 심각한 비행이 되기도 한다[8].

넷째, 재산비행은 재산을 강취하거나 몰래 훔치는 비행으로 강제로 협박해서 재산을 강취하거나 몰래 훔치는 행위,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하는 유형의 비행행위이다. 재산비행은 폭력비행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는 형태의 비행행위로써 행위정도에 따라 심각한 비행이 되기도 한다[8].

그 외 비행은 성(性)비행, 약물비행 등 학자들에 따라 비행의 유형은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위비행과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2.3 청소년기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

2.3.1 애착의 정의

Hirschi(1969)는 “사람들은 왜 규율과 규범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이해하려고 접근하였다. Hirschi는 규율의 준수는 개인과 사회 간에 유대가 형성이 될 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유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과의 애착(Attachment), 규칙을 따르겠다는 신념(Commitment), 일상활동에 참여(Involvement), 그리고 법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Belief)의 4가지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이들 4가지 요소가 약화되면 범죄나 비행에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그는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가정, 또래와의 유대를 강조하고, 결국 청소년이 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정, 또래와의 유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9].

애착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까운 애정적 결속, 존재감, 동일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10].

2.3.2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은 애정도・친밀도・상호작용 및 대화・동일 시 정도로 파악되는 것으로 부모를 사랑하는지, 친밀감을 느끼는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대화를 하는지, 다음에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5], 많은 애착관련 연구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황성현과 이강훈의 연구(2013)에서는 부모의 현재 상황(이혼, 별거 등)이 어떠하든 간에 부모와의 애착이 약하면 청소년들은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11].

그리고 친구와의 애착은 친구와의 친밀도・정서적 지지・친구와의 의논 정도 등으로 측정이 되며, 친구는 모든 영역에서 형제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있으며, 재정적 지지, 장래 및 직업계획, 개인적 가치 등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부모보다 친구에게 더 많은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13].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친구와의 애착이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황창순의 연구(2006)를 비롯하여 박현선과 이상균의 연구(2008), 김재철・성경주・최원형의 연구(2010) 등에서도 친구와의 애착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교사의 애착은 교사와의 친밀도・관심도・상호작용 및 대화・동일 시정도로 파악되는 것으로 교사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관심을 가져주는지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교사의 애착에 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이 감소하고, 학교적응, 학업성취 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조은정(2008)은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12], 정규석(2004)은 부모 및 교사와의 좋은 관계는 청소년의 교육적, 직업적 목표설정에 큰 도움을 주며, 건전한 교육적, 문화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또한 그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청소년들이 내면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여. 이렇듯 교사와의 애착은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청소년비행 관련 연구를 통하여 부모와의 애착, 친구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3. 연구의 설계 및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10대 중후반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Moffitt의 연구(199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대 초반 어린 시절에 비행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10대 중・후반에 잠시 동안 가담하게 되는 청소년에 비해 성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2],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10대 중・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에 의존하여 제시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 청소년 비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는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는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11년 실행되었던 '초등학생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로우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1. 연구모형

애착관계		비 행
· 부모와의 애착 · 친구와의 애착 · 교사와의 애착	⇒	· 지위비행 · 도피비행 · 폭력비행 · 재산비행

3.2 가설의 설정

위 연구의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애착관계는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애착관계는 도피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애착관계는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애착관계는 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2011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지역 초등학생 4~6학년 총 1,650명을 대상을 설문을 진행되었다. 설문내용 중 응답상태가 불량한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5~6학년만을 추출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비행의 실태를 살펴보고,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신뢰도분석을 통한 로우데이터의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4. 연구의 분석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4.1.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초등학생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로우데이터 중 연구에 사용되지 않을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5・6학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표본 수	퍼센트(%)
성별	남	562	49.6
	여	571	50.4
학년	5학년	565	49.9
	6학년	568	50.1
가정의 경제적 수준	매우 낮음	4	0.4
	낮음	34	3.0
	약간 낮음	150	13.2
	보통	475	41.9
	약간 높음	257	22.7
	높음	120	10.6
	매우 높음	35	3.1
부모님 결혼상태	동거	903	79.9
	이혼	123	10.9
	사별	25	2.2
	재혼	21	1.9
	별거	32	2.8
	모두 돌아가심	2	0.2
	무응답	27	2.4

4.1.2 조사대상자의 비행실태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비행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비행실태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지위비행	흡연경험	1~2번	1.26	0.54	1.80
		3~4번	0.25	0.25	0.50
		5~6번	0.10	0	0.10
		7번 이상	0.26	0.34	0.60
		합계	1.87	1.13	3.00
	음주경험	1~2번	3.00	2.50	5.50
		3~4번	0.50	0.60	1.10
		5~6번	0.25	0.25	0.50
		7번 이상	0.40	0	0.40
		합계	4.15	3.35	7.50
도피비행	무단결석	1~2번	0.50	1.10	1.60
		3~4번	0.42	0.08	0.50
		5~6번	0	0.10	0.10
		7번 이상	0.20	0	0.20
		합계	1.12	1.28	2.40
	가출	1~2번	2.17	0.43	2.60
		3~4번	0.24	0.16	0.40
		5~6번	0.20	0	0.20
		7번 이상	0.10	0	0.10
		합계	2.71	0.59	3.30
폭력비행	괴롭히기	1~2번	6.73	8.67	15.40
		3~4번	0.98	0.62	1.60
		5~6번	0.30	0	0.30
		7번 이상	0.64	0.36	1.00
		합계	8.65	9.65	17.30
	폭력행사	1~2번	8.68	4.72	13.40
		3~4번	1.37	1.23	2.60
		5~6번	0.63	0.27	0.90
		7번 이상	1.96	1.34	3.30
		합계	12.64	7.56	20.20
재산비행	절도	1~2번	0.79	0.71	1.50
		3~4번	0.30	0	0.30
		5~6번	0.10	0	0.10
		7번 이상	0	0	0
		합계	1.19	0.71	1.90
	강도	1~2번	0.44	0.26	0.70
		3~4번	0.10	0.20	0.30
		5~6번	0.10	0	0.10
		7번 이상	0	0	0
		합계	0.64	0.46	1.1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로우데이터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 1	3.87	1.056	.779	.851
	부모와의 애착 2	3.64	1.094	.837	
	부모와의 애착 3	3.59	1.098	.804	
	부모와의 애착 4	4.21	.981	.821	
	부모와의 애착 5	3.79	1.093	.755	
	부모와의 애착 6	4.21	.924	.783	
교사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 1	2.54	1.056	.554	.755
	교사와의 애착 2	3.27	.972	.808	
	교사와의 애착 3	3.55	.952	.831	
	교사와의 애착 4	3.53	.994	.693	
친구와의 애착	친구와의 애착 1	3.89	.915	.595	.738
	친구와의 애착 2	3.83	1.055	.555	
	친구와의 애착 3	3.69	1.085	.736	
	친구와의 애착 4	4.19	.899	.792	

4.3 가설분석

4.3.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을 통하여 애착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5. 애착관계가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366	.063		21.727	.000
부모애착	-.062	.015	-.158	-4.093	.000***
교사애착	-.047	.015	-.118	-3.104	.002**
친구애착	.030	.016	.071	1.871	.062
R2= .040, F=13.475					

*p<0.05, **p<0.01, ***p<0.001

가설 1에서는 애착관계를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 교사와의 애착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β값은 -.158로 나타나,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은 줄어들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애착은 유의확률 .002 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β값은 -.118로 나타나,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지위비행은 줄어들며, 교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1은 애착관계 중 부모에 대한 애착과 교사에 대한 애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의 일부가 채택되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10대 초반의 청소년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훈육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비행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교사에 대한 애착 역시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강한 10대 초반의 청소년과 같이 교사라는 존재에 대한 신뢰 및 의존이 높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애착이 강한 10대 초반의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가설 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력은 40%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설 1의 결과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를 통하여 애착이 도피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6. 애착관계가 도피비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86	.040		29.637	.000
부모애착	-.035	.010	-.140	-3.582	.000***
교사애착	.000	.010	.000	-.006	.995
친구애착	-.004	.010	-.016	-.427	.670
R2= .019, F=6.662					

*p<0.05, **p<0.01, ***p<0.001

가설 2에서는 애착관계를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어 도피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

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β값은 -.140로 나타나, 도피비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도피비행은 줄어들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도피비행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교사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도피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애착관계 중 부모에 대한 애착만이 도피비행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의 일부가 채택되었으며,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가설 2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10대 초반의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가출하여 부모에게 슬픔을 줄 만큼 애착관계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도피비행과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부모의 명령을 어길 만큼 10대 초반의 청소년은 비행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4.3.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을 통하여 애착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7. 애착관계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758	.125		14.019	.000
부모애착	-.020	.030	-.026	-.664	.507
교사애착	-.145	.030	-.183	-4.772	.000***
친구애착	.021	.032	.025	.650	.516
R2= .031, F=10.597					

*p<0.05, **p<0.01, ***p<0.001

가설 3에서는 애착관계를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에 대한 애착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애착은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β값은 -.183으로 나타나, 폭력비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교사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폭력비행은 줄어들며, 교사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폭력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애착관계 중 가설의 일부가 채택되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10대 초반의 청소년에게 폭력비행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행행위인데 반해 폭력비행을 통제할 만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아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외부에 의하여 폭력비행이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설 3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력은 31%로 나타나 가설 1에 비하여 낮지만, 가설 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가설 3의 설명력 수치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가설을 지지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4.3.4 가설 4의 검증

가설 4를 통하여 애착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8. 애착관계가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13	.027		40.804	.000
부모애착	-.022	.007	-.128	-3.285	.001**
교사애착	-.005	.007	-.030	-.782	.434
친구애착	.001	.007	.007	.186	.853
R2= .017, F=6.022					

*p<0.05, **p<0.01, ***p<0.001

가설 4에서는 애착관계를 부모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유의확률 .001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계수 β값은 -.128로 나타나, 재산비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재산비행은 줄어들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재산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교사에 대한 애착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친구에 대한 애착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애착관계 중 부모에 대한 애착만이 재산비행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설의 일부가 채택되었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절도·강도와 같은 재산비행을 많이 저지르지 않는 요인은 학교에 입학 전부터 이러한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부모가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주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재산비행에 대한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할수록 재산비행을 통제하지 못하여 재산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설 4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나 가설 2 보다 더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설 4의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유대관계 중 애착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유대관계의 여러 요인 중 애착관계를 중심으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찾고자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이 아닌 10대 초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실시되었던 '초등학생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로우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유대관계 중에서도 애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며,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 비행을 지위비행·도피비행·폭력비행·재산비행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서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렇듯 이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애착은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까운 애정적 결속, 존재감, 동일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부모와의 애착, 교사와의 애착, 친구와의 애착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지위비행 중 '흡연'을 해본 조사대상자의 비율은 전체의 3%였으며, '음주'를 해본 조사대상자는 7.7%로 나타나 음주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피비행의 경우 무단결석을 경험해본 조사대상자는 2.4%였으며, 가출을 경험해본 조사대상자는 3.3%로 나타나 무단결석보다 가출을 경험해본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 중 '친구를 괴롭혀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17.3%나 되었으며, '친구를 때려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20.2%로 나타났다. 재산비행 중 '절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9%였으며, '강도'를 저질러 본 조사대상자는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지위비행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과 교사에 대한 애착이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피비행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도피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비행은 교사에 대한 애착이 폭력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비행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1년 수행된 '초등학생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대표성 있는 로우데이터를 활용하여 애착이 각 비행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의 모형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비행을 복합적으로 살피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비행의 시작점이며 전문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인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요인을 공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착요인이 부모와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참 고 문 헌

[1] 김상운, “학교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152-159, 2013.

[2] 이완희, 유완석 “청소년지위비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9권 pp.217-239, 2014.

[3] T. E. Moffitt,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100, No.4, p.674, 1993.

[4] 윤우석,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81권, pp.175-202, 2010.

[5] 박성수,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서울: 형사정책연구소, 1990.

[6] 김준호,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9.

[7] 남재성,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제5권, 제1호, pp.199-226, 2011.

[8] 김준호,이동원,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5.

[9] 신재헌,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환경적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 김준경,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3호, pp.241-255, 2008.

[11] 이재경, “청소년기 부모애착·또래애착·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2호, pp.51-73, 2012.

[12] 김상원,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 형사정책연구, 제70권, pp.325-362, 2007.

[13] 황성현, 이강훈,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pp.127-145, 2013.

[14] 김민정, *비공식낙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5] 박은하, 권세원,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pp.201-231, 2010.

[16] 이철화, 이연승, “초등학교 학생의 여가활동과 비행”,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0권, pp.579-596, 1998.

저 자 소 개

신 재 헌(Jae-Hun Shin) 정회원

- 2013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박사)
- 2013년 3월 ~ 2013년 6월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범죄학, 부패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인사, 조직, 징계